

갯코지 일대

후지요시다의 중심지에 자리한 갯코지 지역은 오랫동안 인기를 누린 환락가였습니다. 이곳에는 에도 시대(1603~1868)의 특산품인 직물이 지역 경제를 이끌던 시기부터, 전에 없는 번성을 누렸던 192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지역 상인이나 사업가들이 고객을 접대하고 장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친 섬유업계의 국제화로 인해 경기와 인구가 변화하면서 갯코지 절 지구의 활기는 시들었지만, 현재도 이곳이 후지 5호 지구에 유일하게 남은 환락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후지요시다시에서는 요리점의 주인이나 그 외 사업주들과 협력하여 다언어 대응을 위한 간판과 메뉴, 팜플렛을 갖추는 등 해외에서 오신 손님과 일본 국내의 손님 모두가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밤을 만끽하는 목적지로서 갯코지 지역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세카이 간파이 거리

신세카이 거리는 갯코지역 남동쪽의 니시우라 지구 깊숙히 자리한 좁은 뒷골목입니다. 이 거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번성했던 시대에 특히 활기를 띠었던 곳으로 매일 밤 음악과 술 마시고 떠드는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갯코지 지구 전체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이 거리로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활성화 계획이 시동을 걸면서 2016년에 ‘신세카이 간파이 거리’(간파이는 ‘건배’의 뜻)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후지요시다시는 요리점이나 바의 매장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새롭고 세련된 외관으로 다시 태어난 매장 옆에는 멋지게 풍화된 1950년의 간판이 서 있는 등 미묘한 조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갯코지 지구에는 밀리언 거리와 네노카미 거리 등 신세카이 간파이 거리와 닮은 오래되고 멋진 분위기의 거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 거리에도 레스토랑, 면 요리점, 바가 준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그 중에는 전후 번성했던 시기부터 같은 경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도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비교적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스트 하우스가 있으며 스트리트 마켓, 뮤직 페스티벌 등의 이벤트가 갯코지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